

분당을 손학규



이름	득표수	득표율
★손학규(민)	41,570	51.00%
강재섭(한)	39,382	48.31%

강원지사 최문순



이름	득표수	득표율
★최문순(민)	293,509	51.08%
엄기영(한)	267,538	46.56%

순천 김선동



이름	득표수	득표율
★김선동(노)	30,313	36.24%
조순용(무)	18,172	21.72%

김해를 김태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김태호(한)	44,501	51.01%
이봉수(참)	42,728	48.98%

화순군수 홍이식



이름	득표수	득표율
★홍이식(민)	16,523	49.03%
임호경(무)	13,087	38.84%

금호·화정 택지지구 상업시설 설치 규제

광주시 4년만에 없앤다

오늘 도시계획위서 심의

광주시가 개발된 지 10년이 지난 택지지구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를 규제했다가 민원이 잇따르자 4년 만에 철폐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택지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구역 원의 예산을 들여 획일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백지화, 행·재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7일 "28일 오후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 수립한 금호·화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지난 2007년 해당 지구의 주거지역을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일반주택'과 1층 면적의 5분의 2만을 상업시설로 할 수 있는 '점포주택'으로 세분해 규제했던 것을, 주거지역 내 모든 주택 면적의 5

분의 2를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를 제외한 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초 택지개발 당시로 환원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수완·신창·하남·진원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를 제외한 다른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규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광주시가 이처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신규허가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해 '동일 지구 내 다른 정책'에 반발하는 민원이 빚발친데다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규제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때 상업지역을 최소 규모로 공급하는 대신 주거지역에 일부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주거지역 내 불법주정차 및 교통 정체 문제가 심각해져 규제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행정적인 실의 없이 민원만 양산시켜 불가피하게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나라당 재보선 참패

한나라 심장부 분당을·강원지사 민주당 완승 투표율 39% 재보선 사상 최고치...정국 요동

4·2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이른바 '빅3' 지역 중에서 한나라당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는 성남 분당 을과 약세가 예상됐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누르고 승리한 반

면 한나라당은 경남 김해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태호 후보가 단 1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또한, 민노당은 순천 국회의원 보선에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김선동 후보의 승리로 호남에서 첫 민노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여야 전·현직 대표가 맞붙은 성남 분당을 개표 결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51%(4만1570표)의 득표율로, 48.31%(3만9382표)를 얻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안았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선거 초반 약세를 보였던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득표율 52.08%(29만3509표)로, 46.56%(26만7538표)의 득표율을 얻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

김해 을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51.01%(4만4501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야권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48.98%·4만2728표)를 따돌리며 한나라당의 체면을 살렸다.

순천 국회의원 보선에서는 득표율 36.24%(3만313표)를 기록한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무소속 조순용 후보(21.72%·1만8172표)를 누르고 첫 호남 민노당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화순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홍이식 후보가 49.03%(1만6523표)를 득표해 38.84%(1만3087표)를 얻은 무소속 임호경 후보를 따돌렸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총선·대선의 전초전 성격에 정국의 풍향을 가늠할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권인 한나라당은 향후 정국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며,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수도권 '덧발' 분당을

에서 패하면서 패닉에 가까운 총력 속에서 내년 총선을 격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38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선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320만8954명 중 126만4355명이 투표를 마쳐 39.4%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동시 재보선이 예정되던 2000년 이후의 평균 투표율을 32.8%를 6.6%포인트나 웃돌았고, 2001년 10·25 재보선(41.9%)과 2005년 10·26 재보선(40.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를,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구 3곳만 보면 43.5%로 동시 재보선 사상 역대 최고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풍향계로 인식되면서 주 선거지역에서 여야가 사활을 건 선거전을 벌였고, 이에 따라 예년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

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전액환수

금감원, 보해저축은행 등 7곳 1077억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부당인출된 예금에 대한 전액 환수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성격을 가려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용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산 현지에서 저축은행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전 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에 1077억원이다.

하지만 고객이 은행에 맡겼다가 인출 절차를 거쳐 찾아가 돈의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타당성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금융당국이 직접 예금 환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시각이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59 광주일보 1952-2011

광주 21세기병원

축개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331-중-21659 광고

광주 21세기병원의 관절클리닉(어깨, 무릎, 발목)에서는 임상경험을 쌓으신 의료진들이 함께 합니다.

고객의 건강과 이쁨을 함께 하며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주 21세기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병원급 1.5T, MRI
- 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미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인공관절 수술
최민혁 원장

무릎내시경 수술
오선종 원장

어깨관절 수술
이자용 원장

정형외과 진료
광주 21세기병원 | 운남고등학교 맞은편
GWANGJU 21ST CENTURY HOSPITAL | 062-953-7000 · 958-9000

제 56 회 호남예술포럼 오늘 개막